

찬 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435장) 다 같 이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기도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지침

- ① 각 가정의 신앙 세대주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 ②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 ③ 수고한 농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 ④ 예배 후에 음식을 장만하여 가족, 친척, 이웃과 함께 교제합니다.

추 석 감 사 예 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338-146
 ☎ 374-6161, 374-6168(FAX) www.sjch.kr

예 배 순 서

예배의 부름 신 26:10-11 인 도 자

모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찬 송 공중 나는 새를 보라(588장) 다 갈 이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 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냐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 도 가족 중에서

성 경 봉 독 딤펢전 6:17-19 인 도 자

17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설 교 『올바른 소망을 가지라』 인 도 자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그 꿈을 이룬 사람도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석명절을 맞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는 소망이 올바른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면서 인생을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1.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세상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한 자들이 처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을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잊게 되고, 자기 잘난 멋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기록한 저자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며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 30:8-9)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소망의 근거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모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돈은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참된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에 참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2. 진정한 행복

행복의 근거를 소유의 넉넉함에 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는 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화려한 성, 사치의 도성 바벨론이 무너질 날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치를 일삼으면서 이 세상의 만족에 도취되어 있던 자들의 애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추석명절을 맞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을 청산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새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